

“산너머 남촌, 봄꽃 피는 ‘숲길’ 걸어 보세요”

전남도가 9일 봄꽃과 탁 트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걷고 싶은 숲길을 선정했다. 봄꽃 향기와 함께 화순 오감 연결길, 해남 흑석산 치유숲길, 여수 하화도 꽃섬길, 목포 입암산 정원숲길, 보성 활성산성 편백 숲길을 걸으며 힐링해보자.



화순 만연산에 조성된 3km의 오감 연결길은 소나무, 참나무, 수국 등이 어우러져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숲길을 따라 나오는 피톤치드 향기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 치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발점에 만연산 치유센터가 있어 명상, 요가, 족욕 등 다양한 숲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남 계곡면 흑석산에 조성된 흑석산 치유숲길은 3km로 철쭉꽃이 피는 봄 숲의 은은한 향기와 새소리가 느껴지는 산책로다.

도유길은 저수지 주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 숲과 물의 경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여수 뱃사공도 반한 하화도 꽃섬길은 화정면 하화도에 조성한 5.7km의 길이다. 숲길 양쪽에 붉은 동백꽃과 함께 진달래, 유채꽃 등 야생화를 볼 수 있다.

9900여㎡(3000여평)의 넓은 야생화 군락지에 있는 피아노 포토존과 65m 높이의 꽃섬다리에서 볼 수 있는 탁 트인 바다, 아찔한 해안동굴은 일품이다.

**화순읍 오감 연결길
해남 흑석산 치유숲길
여수 하화도 꽃섬길
목포 입암산 정원숲길,
보성 활성산성 편백숲길
향기따라 봄마중 가볼까**

목포 상동에 3.5km로 조성된 입암산 정원숲길은 소나무 숲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왕벚나무, 배롱나무 등 산림 치유에 좋은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보성 활성산성 편백 숲길은 활성산에 2.2km로 조성된 길이다.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우거져 숲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인근 차 박물관, 북재 카페 등 녹차 관광지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1224개 노선 4223km의 숲길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계절별로 걷고 싶은 숲길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의 매력적인 산림경관 자원을 활용해 누구나 걷고 싶은 안전한 숲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숲길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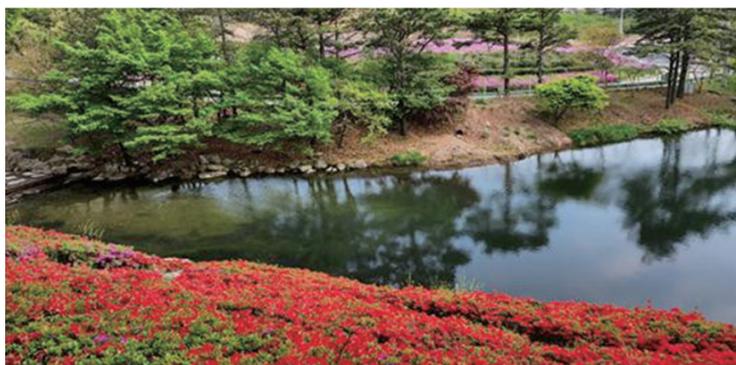
전남도는 올해 69억원을 들여 등산로 180km 정비, 트레킹길 47km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관리에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박간재 기자**



보성 활성산성 편백 숲길



화순 오감 연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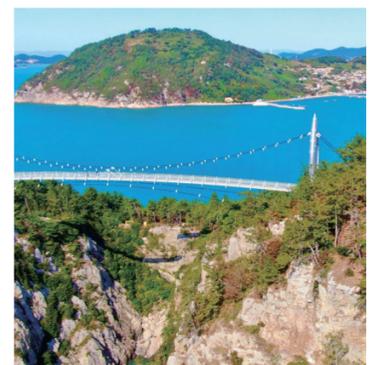


해남 흑석산 치유숲길

↑ 전남도가 9일 봄꽃과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봄이 오는 길목-걷고 싶은 숲길’ 5곳을 선정했다.

산너머 남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과 봄꽃 향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화순 오감 연결길 △해남 흑석산 치유숲길 △여수 하화도 꽃섬길 △목포 입암산 정원숲길 △보성 활성산성 편백 숲길 등이다. 지난해 목포시 상동 입암산 눈꽃정원 왕벚나무 숲길에 핀 벚꽃.

전남도 제공



여수 하화도 꽃섬길